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8일 수요일 음 12월 9일 (1물)

건강&생활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 낮 최고기온은 10-11℃로 예상된다. 산지에 최대 20cm의 적설이 예상되니 산행 및 차량운행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가능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눈 2/4℃ 모레 흐리고 비/눈 2/6℃

월드뉴스

‘동남아 최대 경제국’ 인니, 브릭스 합류

‘반 트럼프’ 구도 형성 관심

중국·러시아 주도 신흥 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BRICS)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최대 규모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손잡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과 인니 프라보워 대통령. 연합뉴스

유엔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브릭스는 이들 5개 회원국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42%, 영토의 26%, 국내총생산(GDP)의 23%, 교역량의 18%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브릭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최근엔 두 나라를 중심으로 ‘달려 대안을 찾자’는 주장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신운경 불경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흔란스럽고 위태로운 시국과 느닷없는 참사로 새해인 듯 새해 아닌 날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의 이 기막힌 상황은 그간 우리 사회에 누적돼 온 병폐와 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하다.

많은 이들이 부와 권력을 좇는다. 이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사는 세상이다 보니 누군가의 ‘마음대로’는 다른 누군가의 불편과 억울함을 낳게 된다.

생명의 양식

래서 인간 사회는 양심이라는 윤리와 제도화된 법을 통해 ‘내 마음대로’를 제한한다.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마음대로’에 의해 그렇지 못한 이들이 받게 되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 사회는 집단주의에서 각자도생의 개인주의를 거쳐 연대하는 개인의 문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의 표준에 맞추던 사회에서 다양한 기준이 인정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세상에는 언제나 상반되는 힘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은 변해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약육강식 대약자 보호’, ‘각자도생 대 연대’, ‘표준 대 기준의 다양화’, ‘물질주의 대 전체론(Holism)’, ‘혐오와 차별 대 존중과 환대’, ‘반생명 대 생명’의 힘들이 불꽃을 튀기며 충돌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타자와 주고받는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다. 누군

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와 생명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명을 북돋는다. 부와 권력을 쫓을 때에도 그 최종 목적은 충만한 생명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제껏 유구한 인류 역사의 흐름이 그러했듯,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우리는 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연대하며, 기준을 다양화하는, 전체로서 살아가고, 타자를 존중·환대하며, 서로 생명을 북돋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열린마당

민생(民生)과 도민생각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세계경제를 ‘3고(高)시대’라 한다.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이 그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생은 ‘1고(高)2저(低)’의 시대라 부르고 싶다.

세계경제를 ‘3고(高)시대’라 한다.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이 그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생은 ‘1고(高)2저(低)’의 시대라 부르고 싶다. 게다가 작년 말부터 대한민국이 다사다난하다. 역시나 민생경제는 어렵고 회복의 바람은 찬바람이다.

AI기술이 반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양현진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본부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런 AI기반 기술들은 해당 분야를 더욱 혁신적으로 탐험을 시키고 있으며 이는 여러 공공시설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년 365일 쉬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자의 경험에만 의존한 운영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쉽게 된다. 이로 인한 전기 사용과 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는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내 최대 규모인 제주하수처리장에 대하여 AI기반 처리시설 설비 운영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절감과 유지보수의 사전 예측을 통한 시설 기능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모형을 확보한다. 그리고 자동 운전·제어를 위한 공정최적화 기반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관리체계가 적용된 선진화된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AI기술의 도입은 안정적인 처리수질 확보, 에너지와 운영비의 절감 등 운영 목표 달성에 무척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Property Exchange' (국제보청기프라자) featuring government support and property sales.

Advertisement for 'Sennit' (씨니트) mushroom products, highlighting quality and variety.

Advertisement for 'Sennit' (씨니트) mushroom products, featuring 'Future, Our Direction' (미래향, 우리향) and 'Sennit, Our Direction' (씨니트, 우리향).

Advertisement for 'Ganggul' (감굴) mushroom products, featuring 'High Quality Expert's Green Mushroom' (고품질 고수의 그린향) and 'Large Scale House' (대규모 하우스).